

“도시락 판매도, 반찬가게도, 시장 상인도 뭉치면 기업이 된다”

광주·전남 ‘협동조합’ 설립 신고 봇물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는 더불어(樂)과 청소박사, 행복빛고을, 클린공산 등 4곳이 협동조합으로 신고·수리됐다. 또 광주시에는 하루평균 10여건씩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광주의 제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樂)’는 광산구 월곡동 소재 노인복지관 회원들이 주도하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5명의 조합원이 1500만원의 출

자금으로 설립했다. ‘더불어(樂)’은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팔죽과 두부 등을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다.

또 ‘청소박사’는 서구지역 자활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7명이 만든 청소용역 협동조합이다. 청소박사는

지역 종전건설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청소, 공공기관 건물 청소 등을 하고 있다.

5명이 풍처 만든 ‘행복빛고을’ 협동조합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생활·산업폐기물 운반 협동조합인 ‘클린공산’은 기존업체의 청소용역 노조원 13명이 모여 설립했다.

광주시 김동형 사회적기업 담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자본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성과를 함께 나누는 게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까지 목포북항 상인, 순천 시장 상인, 해남 김생전자, 건설기계 소유자 등 20여곳에서 상담을 마쳤고, 설립신고도 67곳에 접수되고 있다.

목포지역에서는 다문화 공연 등을 여는 다문화협동조합이 신고를 마쳤고, 영암 무화과 재배 농민들은 무화과를 공동 판매하기 위해 영암무화과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설립 신고를 했다. 또 순천에서는 반찬과 김치류를 공동 생산하기 위한 행복마을전남협동조합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겨냥한 나주 빛가람생명농업협동조합이 신고 서류를 냈다.

전남도는 이를 중 지난 14일 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의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이 이따금 협동조합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오광록기자 lucky@



“많이 먹고 추위 이겨내렴”

24일 광주시 사직공원에서 ‘도시에서 겨울새들의 안부를 물다’란 주제로 열린 ‘2012 생태 문화행사’ 참가자들이 아생동물을 위해 먹이를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통 3사 20~24일간 영업정지·118억 과징금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훈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재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 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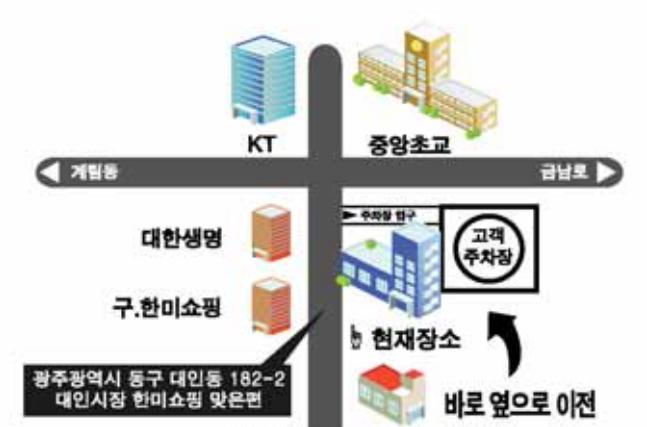
간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30일(24일간)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이 내년 1월31~2월21일(22일간), KT는 내년 2월22~3월13일(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

9000만원, KT에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 등 이통 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 휴진 일요일은 오전진료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70,000,000원	4,600,000원	
농협중앙회	15,000,000원	2,100,000원	
씨티은행	10,000,000원	1,170,000원	
지역농협	9,000,000원	1,880,000원	
상성카드론	8,000,000원	2,800,000원	
더불어저축	37,500,000원	11,200,000원	
SC제주은행	15,000,000원	4,485,000원	
솔로몬 저축	20,000,000원	7,800,000원	
대부업체	180,450,000원	36,035,000원	
총부채		118억9000만원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100,000,000원	6,750,000원	
농협중앙회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지역농협	120,400,000원	14,450,000원	
상성카드론	180,450,000원	36,035,000원	
더불어저축	190,050,000원	46,050,000원	
SC제주은행	150,000,000원	4,485,000원	
솔로몬 저축	20,000,000원	7,800,000원	
대부업체	180,450,000원	36,035,000원	
총부채		118억9000만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전남 총생산액 40% 외지 유출

1인당 개인소득 1226만원 전국 끝찌

전남의 평균 개인소득이 1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역총 생산은 많았지만 지역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개인소득도 낮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지역내총생산(nominal)은 62조6000억원으로 지역총소득(37조 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9.6%에 불과했다. 이는 충남(58.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총소득이 지역내총생산보다 낮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다른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됐다는 뜻이다. 전남의 경우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대불산단 등 대형산단이 많아 다른지역에서 거주하며 전남

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타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전남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영업이 이은 다른지역으로 이전돼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532만원으로 울산(6253만원)과 충남(303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22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이로인해 1인당 민간소비(1039만원)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는 지난해 지역내총생산(26조6000억원)보다 지역총소득(27조원)이 많아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이 101.5%로 100을 웃돌았다. 하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765만원으로 대구



(151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고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도 각각 1374만원, 1202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이은미기자 emlee@

알림

제7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김선옥 교수 ‘망설이지 마세요. 여성 요실금’

광주일보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8일 제7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응급자원은 내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주소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오광록기자 kroh@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비뇨기과 김선옥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여성 요실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 원인, 종류, 치료·방법, 치료와 운동요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김선옥 교수의 ‘망설이지 마세요. 여성 요실금’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의 내용은 내년 1월2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망설이지 마세요. 여성 요실금’
- 강 사 : 김선옥 비뇨기과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내과요술금학회
-대한소아비뇨기과 -국제요실금학회
-미국비뇨기과학회 -유럽비뇨기과학회
-세계비뇨부인과학회

- 일 시 : 12월 2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